

전북문화관광재단 '청춘마이크' 11일 비대면 공연

Let's Co-Play 당신과 나의 콜라보

내일부터 4일동안 객사 인근 딥인투 라이브 클럽에서 개최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따라 방역 수칙 준수 하 진행
센세이션-무직회사 · 페이지-이상한 계절 등 콤비 이휘 공연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이 청춘마이크의 11월 정규공연을 팀 간 장르 간 콜라보로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2020 청춘마이크 전복권 참여 예술인 33개 팀이 'Let's Co-Play, 당신과 나의 콜라보' 라는 주제로 객사 인근 딥인투 라이브 클럽에 모여 오는 24일부터 27까지 4일간 진행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함에 따라 참여예술인과 관객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마지막 정규 공연은 현장의 사전 소독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할 예정이다.

공연 영상은 12월 첫 주부터 유튜브 공식 채널인 '2020 청춘마이크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온라인 플랫폼과 재단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팀 간, 장르 간 콜라보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해 내용의 변화를 시도했다.
요일마다 진행되는 콜라보 공연은 화요일 센세이션-무직회사의 '무직센세 가, 수요일 페이지-이상한 계절의 '이상한 계절의 한 페이지' 가, 목요일에는 토리밴드-슬로우진의 '토리우진' 이, 금요일에는 고니밴드-Bass on tap의 '고니밴드 ON TAP' 이 서로 환상의 콤비가 돼 매력을 발산한다.
11월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이뤄지는 이번 정규공연은 24일 오후/저녁 8개 팀, 25일은 오전/오후 8개 팀, 26일은 오후/저녁 8개 팀, 27일은 오전/오후 9개 팀, 총 33개 팀의 공연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청춘마이크'는 문화가 있는 날의 대표사업으로 재단과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해 35세 미만의 청년 아티스트에게 버스킹 무대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꿈을 키우고 전문성을 가진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콜라보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 각 팀이 가진 최고의 재량과 끼를 선보여 흥미 있고 참신한 무대를 꾸며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사업팀(063-230-7444)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청춘마이크 11월 정규공연 배너

영화음악, 거장을 초대하다

군산시립교향악단, 27일 특별기획연주회
신광섭 팬플룻 공연... 방역수칙 준수 하 진행



군산시립교향악단이 오는 27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 62회 특별기획연주회 '영화음악, 거장을 초대하다' 공연을 갖는다.
군산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백정현의 지휘와 팬플룻 신광섭의 협연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주회는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인기 영화 속 메인 테마곡들로부터 최근 영화들의 배경 음악들을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선율로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연주회는 코로나19의 지역 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객석간 거리두기 공연으로 진행해 좌석 일부만 개방한다. 당일 매표는 이뤄지지 않으며 공연장 이용객을 위한 안전 지침도 마련됐다.
모든 방문객은 지정된 출입구를 통해서만 입장이 가능하며, 발열 체크하고 방문객은 네이버 QR코드 및 리스트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이 제한되며, 관람 중에도 착용해야 한다.
이번 공연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팬플룻의 신광섭씨가 특별 출연해 팬플룻의 매력을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영화음악의 거장 존 윌리엄스, 엘미전 안타깝게 타계한 이태리의 명장 엔리코 모리코네, 그 외 실베스트리

와 한스 짐머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 영화음악 감독 이병우 감독의 작품들 중 그들에 대표적인 스타워즈, 해리포터, 윈스어 폰터타임 인 아메리카, 황야의 7인 등의 OST모음곡을 군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를 통해 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당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군산시립교향악단의 이번 연주회가 시민들에게 지친 일상 속 단비와 같은 역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연 입장료는 전석 무료이며, 초등학생 이상 관람 가능하다.
/군산=남현봉 기자

발레 애호가들을 위한 해설 있는 갈라 무대

익산예술의전당, 26일 저녁 유니버설발레단 초청 무대
백조의 호수 · 지젤의 파드되 등 선배... 방역수칙 준수

익산예술의전당이 오는 26일 오후 7시30분 대공연장에서 '11월 문화가 있는 날' 공연으로 '유니버설발레단 해설이 있는 발레 갈라'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발레 애호가들을 위해 예술의전당이 기획한 공연으로 문훈숙 단장의 작품 해설과 함께 유니버설발레단의 주역들이 출연하여 클래식 발레의 대표작인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인형', '지젤'의 파드되(pas de deux)를 선보인다. '파드되'는 발레에서 두 사람이 추는 춤을 말한다.
'백조의 호수'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대표 발레 작품으로 로트바르트의 마력에 의해 백조가 된 공주 오데트와 왕자 지그 프리드의 송고한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이번 공연에서 '백조 파드되'와 '호두 파드되'를 모두 감상할 수 있다.
이어 매년 겨울이면 전 세계에서 공연되는 신비롭고 환상적인 무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발레 입문작 '호두까기인형'의 '스노우 파드되'와 '그랑 파드되'를 선보이는 등 환상의 무대가 기대된다.
'스노우 파드되'는 마법사 드룽셀마이어의 힘으로 호두까기 인형이 멋진 왕자로, 어린 클라리는 아름다운 아가씨로 변해 함께 추는 사랑의 2인무이다. 높은 고난도의 테크닉을 필요로 하는 춤으로 화려한 점프와 도약으로 관객의 눈을 사로 잡을 것으로 보인다.
'그랑 파드되' 역시 주인공 클라리와 호두 왕자의 사랑의 2인무이다. 파자의 나라로 떠난 클라리가 설탕요정이 되어 호두 왕자와 함께 추는 2인무로, 호두 왕자의 긴 연속점프와 빠른 도약, 내비처럼 가볍고 사랑스런 사랑요정의 몸짓은 이 작품의 화룡점점이라 할 수 있다.



다.
이번 공연은 낭만발레 '지젤'의 죽음의 위기에 처한 연인을 지키기 위해서 윌리가 된 '지젤'과 '알브레히트'가 함께 추는 사랑의 2인무 '지젤 파드되'로 마무리된다.
해설을 맡은 문훈숙 단장은 영국과 모나코의 왕립발레학교를 거쳐 1984년 설립된 유니버설발레단의 창단 멤버이자 워싱턴 발레단에서 활약했던 프리마 발레리니이다.
공연 관람은 무료이지만 익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관람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된다.
/익산=정양원 기자



김제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짐계맹쟁 밤마실 가자! 2020 김제 문화재 야행(夜行)'을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온라인 김제 문화재 야행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문화재 풍류, 역사 유튜버가 들려주는 김제 문화재 이야기, 알송달송~ 김제 문화재 퀴즈쇼 (라이브), 김제 무형문화재 공예품 온라인 경매 (라이브) 등 영상 송출을 통해 참여하는 사람들과 함께 생방송 소통 행사로 진행한다.
또한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한 랜선 김제 사포 부임 행사, 김제 갈래 챌린지, 문화재 복원가 (홈페이지 사전접수), 양반 증서 만들기 (홈페이지 사전접수) 등 연계 콘텐츠도 온라인을 통해 체험과 접수가 가능하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2020 온라인 김제 문화재 야행을 통해 '우리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고 코로나19로 지친 심신과 일상에 작은 위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0 온라인 김제 문화재 야행은 '김제 문화재야행' 유튜브 채널과 공식 홈페이지 (www.김제문화재야행.com)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